

“The leaves of the tree wer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.”
(Revelation 22:2)

[한국일보] “1998,09,21”

Posted on September 17, 2018 by admin



1998년 9월 21 · 22일 (월 · 화요일)

당뇨병 새치료 물질 나왔다 캘거리대학, 교민기업 공동개발 천연약초에서 추출, 부작용 없어

캐나다 캘거리대 의대 당뇨연구센터와 개발 파트너인 EBMRS는 21일 천연약초에서 새로운 당뇨병 치료물질인 '엘레틴'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동 발표했다. 이에 앞서 EBMRS는 이미 P-700을 이용한 건강치 '엘레오린'을 지난 4월부터 북미지역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으며, 당뇨병치료 의약품 개발을 추진중이다.

공동개발자인 EBMRS는 캐나다 밴쿠버 소재의 교민기업인 아스트로바이오텍(김원수 사장)의 계열사로 당뇨병과 암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중인 신약개발 전문회사다. P-700으로 명명된 이 당뇨병 치

료물질은 천연약초에서 추출돼 기존 당뇨병 치료제에 비해 부작용이나 내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캘거리대학의 EBMRS는 밝혔다.

EBMRS는 “위상실원 경과 P-700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존 당뇨병 치료제 기능 외에도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강화하고, 근육 조직에서 인슐린을 잡아주는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”고 밝혔다.

EBMRS는 “산인병의 대경사로 난치병으로 알려진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셈”이라고 설명했다.

Search... 

OTHER LANGUAGE SITES:

Español | 한국어 | 中文

University of Calgary (UTI) officials



Press conference at the launching of the first Eleotin

Posted in Media Reports

← Seaweed supplement may aid weight loss: study

[한국일보] “1998,08,21” →

JOIN US AS A:

- Affiliate
- Distributor

For shipping to Canada, please go here.

LOG IN

Username
or Email

Password

Remember Me

[LOG IN](#)

[Register](#)